

# 바람과 마주하는 레저 항공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글. 박상주 YTN IT시스템팀 사원



## 패러글라이더란?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더(Hanglider)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패러글라이더는 인력 활공기라 할 수 있다. 즉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륙을 하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이륙하여 비행한 후 두 발로 착륙을 한다. 따라서 패러글라이더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 인력 활공기에 속한다.

## 패러글라이딩 역사

1984년 프랑스 등산가 Jean Mark Cuovins가 낙하산을 개조하여 처음 패러글라이더를 만들어 비행에 성공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패러글라이더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1986년 처음으로 소개되어 레저 항공 스포츠로 널리 각광 받기 시작하여 한국 활공 협회에 패러글라이딩 분과가 개설되어 오늘날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는 낙하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패러글라이더는 모양 및 성능이 사각형 낙하산(램에어 패러슈트)과 비교하여 조금 나은 성능을 보이는 장비들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많은 선수가 패러글라이더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여 많은 선전을 하고 있으며, 2002년 우리나라 패러글라이더들은 국가 랭킹 9위로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 패러글라이딩 명소

우리나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 단양 소백산, 양평 유명한, 광주 무등산, 부평 계양산, 영종도 백운산, 성남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 파라봉, 원주 치악산, 대전 성주산, 청주 성무봉, 통영 미륵산, 무주리조트, 남원 정령치, 대구 금계산, 고령 약산, 부산 금정산, 진해 장복산, 남해 금산, 삼천포 와룡산, 제주 영주산 등이 있다.

특히, 단양은 연평균 300일 이상 비행이 가능해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추천되고 있다.



양평 유명한 패러글라이딩



단양 소백산 패러글라이딩 탑승 장소

## 패러글라이딩 장비

### 캐노피(Canopy)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로써 양력을 발생시키며 항공기의 날개 역할로 캐노피와 조종석(하네스)을 연결하는 산줄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선수용이 있으며, 파일럿의 몸무게에 따라 각각의 사이즈가 있다. 글라이더의 선택은 자신의 실력과 경력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산줄(Suspension lines)

산줄은 날개와 하네스를 연결해주는 줄 케이블 또는 다이 나마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비행자의 무게를 날개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 하네스(Harness)

캐노피가 날개라면 하네스는 항공기의 몸체와 같다. 캐노피에 연결되어 파일럿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시트

형, 서파인형, 포드형 및 라이저 일체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트형이 가장 많이 쓰이며, 착용 시 움직임과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 라이저(Riser)

각 산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네스에 연결해주는 끈으로서 초, 중급 기종은 2~3개의 라이저 방식으로 고급기종은 3~4개의 라이저로 연결된다. 산줄을 모아주는 띠로 비너를 통해 하네스와 연결이 된다.

### 헬멧

헬멧은 비행하는 사람 외에 지상 연습하는 사람에게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지상 착륙 시 또는 연습 시 무게 중심을 잃어 머리 부분이 지면 또는 돌 등과 충돌하여 다치는 경우가 있어 헬멧은 항상 바르게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장갑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비행하다 산줄과 마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 또한 초가을부터 겨울에는 장갑이 필수적이다. 고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다 보면 손이 차가워져 조종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글라스**

자외선으로 인해 눈물이 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 또 덤불이나 나무에 불시착했을 경우 눈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비행화**

충격 시 발목의 뼈와 인대를 보호해줌으로써 초보일수록 더욱 전문 비행화를 권장한다.

**비행복**

무더운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는 필수이며 고도 비행 또는 장시간 비행을 위해서는 원피스로 구성된 기능성원단의 비행복은 필수이다.

**구조 낙하산**

실고도 50m 이상에서는 비행하는 자는 패러글라이딩 항공 법상 구조 낙하산 착용이 필수이다.

**무전기**

지도자에게서 비행 기술 연마와 기상 상황 변화 안내 나와 동료들의 안전 유무 확인 등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므로 항공 스포츠에는 필수품이다.

**GPS**

현재위치, 비행시간, 비행 방향, 비행거리, 대지 속도, 현재 고도 등 비행 중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도계**

상승 하강 현재고도 등을 소리와 디지털 화면을 통해 파일럿에게 알려주며 비행시간 기압 등을 알려준다.

**풍속계**

지면 위에서는 바람의 대지 속도를 알려주며 비행하는 글라이더에서는 비행하는 대기(바람을 가르는 속도)속도를 알려준다.

**패러글라이딩 탑승****이벤트**

패러글라이딩 탑승 전, 다양한 포즈와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해 주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탑승 시 찍은 동영상을 답아서 주기도 한다.

**탑승 조건은?**

나이는 6세~85세, 몸무게는 20kg~100kg까지 가능하다. 만약 100kg이 넘는다면 장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 추가 요금을 받고 진행해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딩 체험가격은?**

패러글라이딩 체험가격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스별 비행에 따라 8만 원 ~ 15만 원까지 다양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2인승 체험 비행을 하게 된다. 만약 혼자서 비행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3~4시간 교육 후 가능하다.

**탑승 전 필수 사항**

강풍, 비,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바로 탈 수도 있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탈 수도 있으며, 못 타고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으니 예약하기 전 날씨 확인은 필수다. 이처럼 날씨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없는 경우로 예약취소





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액 환불이 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전액 환불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업체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멀미약을 미리 구매해서 타기 전에 먹는 것을 추천한다.

### 끝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탑승하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양하다. 우리가 지상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패러글라이딩을 타면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며 거기서 본 풍경과 경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면 패러글라이딩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 한국패러글라이딩학교, 네이버 지식IN 낭만패러님의 답글,  
자생한방병원 블로그, 트래블양평

